

여수엑스포 결정 D-4

대표단 파리 현지 유치전 돌입

외교관 투입 BIE 대표 맨투맨 마크

지난 21일 밤(이하 현지 시간) 국제박람회기구(BIE) 제142차 총회가 열릴 프랑스 파리에 도착한 한국 대표단과 프레젠테이션 출연진 등 180여명은 곧바로 현지 유치전에 돌입했다. 대표단은 도착 즉시 현지 베이스 캠프인 주 프랑스 대사관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성하고 최종 유치계획을 점검하고 막판 투표전에 나섰다.

각국 대표 초청 '한국 문화의 밤' 행사
여수 시민들 매일 정오 유치 염원 묵념

○김재철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위원장(동원그룹 회장)은 파리로 향하는 전세기에서 "지난 500여 일간의 노력 끝에 관세는 여수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면서도 "끝까지 건투해 국민의 염원인 여수엑스포를 반드시 유치하자"고 독려했다.

비교적 청명한 초겨울 날씨의 파리 샤를르 드골 공항에 내린 유치대표단은 마지막 결전을 앞두고 비장한 결의를 다졌으며 북한 등 비회원국의 가입으로 BIE 회원국은 지난 5월 98개에서 22일까지 134개국으로 증가.

○김재철 유치위원장의 분석대로 관세는 여수에 유리하다는 게 우리 측의 판단이지만 총회 개최 직전까지 BIE회원국 가입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결과는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

지난 5월까지 98개국이었던 BIE 회원국이 지난 19일 현재 120개국으로 증가한데 이어 22일 현재 북한 등 14개국의 추가 가입으로 134개국까지 늘어나 관세분석을 매일 다시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

유치위의 자체 분석 결과 우리나라는 아시아와 중미에서 강세, 남미와 북유럽·동유럽에서는 우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동과 서유럽에서는 약세, 아프리카에서는 경합중인 것으로 파악.

하지만 총회 전까지 회원국 가입이 완료된 국가에는 투표권을 주는 BIE 특성상 신규가입국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선부분 단언은 어렵다는 게 유치위의 설명.

○파리에 속속 집결하고 있는 김재철 유치위원장, 정몽구 명예유치위원장과 23일 파리에 합류할 한덕수 국무총리 등 유치단 대표는 파리 현

지 BIE 대표들을 한 명 한 명 만나 마지막 실무작업을 벌일 계획.

현재 80여개의 BIE 회원국은 파리에 파견된 외교관 중에서 BIE 대표를 선임한 상태이며 우리나라는 이들을 대상으로는 이달 초부터 구분우 주 샌프란시스코 총영사 등 유치전 경험이 많은 고위 외교관들이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계속.

○BIE 대표들을 상대로 한 막판 현지 유치활동의 절정은 한덕수 국무총리 주최로 23일 파리의 오페라 가르니에에서 열리는 '한국 문화의 밤'.

이 날 행사에는 파리에 있는 각국 BIE 대표 전원이 초대된 가운데 전남도립국악단의 화관무, 가야금 병창 등이 공연되며, 마술사 이은결은 마술쇼를 진행.

○"지난 21일 파리에 도착한 박준영 전남 지사 등 전남대표단은 22일 낮 주불 특파원 및 국내 언론인과의 오찬간담회를 열어 유치 동향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

이어 오후에는 기차편으로 벨기에 로이동해 브뤼셀에서 오후 6시 김재철 유치위원장과 공동으로 벨기에 주재 카리브해 및 남태평양 지역 15개국 세계박람회기구(BIE) 대표를 초청해 만찬을 함께하며 지지를 호소.

○"정부는 2012년 세계박람회(엑스포)의 여수 유치가 성공할 경우 북한이 박람회에 참여를 희망하면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조희용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여수의 박람회 유치가 확정돼서 북한이 참여를 희망한다면 남북협력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최근 세계박람회기구(BIE)에 회원국으로 가입, 2012년 박람회 개최국 선정 투표권을 갖게 된 것과 관련, "북측이 BIE 총회의 표결에 참가한다면 우리 측을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수 시민들은 2012 세계박람회 개최국 결정일을 5일 앞둔 22일부터 매일 낮 12시에 유치를 염원하는 묵념을 하며 엑스포 유치를 기원.

시민들은 읍·면·동사무소와 마을회관 등 215곳을 통해 약 10초간 울리는 사이렌에 맞춰 박람회를 반드시 유치하겠다는 각오의 묵념을 하며 여수시 공무원들은 지난달 말부터 매일 오전 9시 엑스포 유치 기도 후 업무를 개시.

/파리=홍행기자 redplane@/북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동북댐 인공습지 수질 되레 악화"
"하남택지 설계 부실 공사비 늘어"

광주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광주시가 시민의 식수원인 동북댐 수질 정화를 위해 26억여원을 들여 인공습지를 만들었으나 습지 조성 이후 수질이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광주시의회는 올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22일 시 상수도사업본부와 광주도시공사, 도시철도공사 등을 상대로 감사를 벌였다.

◇인공습지 조성 후 수질 되레 악화=유재신 의원(민주·광산2)은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감사에서 "시가 동북댐에 유입되는 빗물을 정화한다는 목적으로 26억7천600여만원을 들여 댐 주변에 인공습지를 만들었으나 조성 이후 유출수의 수소이온농도(PH), 탁도, 부유물질(SS), 총인, 총질소 등이 유입된 물에 비해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시는 이서천(2004년 12월~2005년 6월)과 동북천(2005년 7월~2006년 8월), 내북천(2006년 8월~2006년 12월) 등 세 곳에 13만6천㎡의 인공습지를 조성하고 참모와 갈대, 억새, 미나리 등을 심었다.

유 의원은 "상수도본부 산하 수질연구소가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이서천의 경우 수소이온농도가 지난해 6월 유입수는 7.5로 정상이었던 반면 유출될 때는 9.1로 기준치

를 초과했다"고 강조했다. 또 불순물이 많아서 발생하는 전기전도도는 유입시 48μs/cm에서 유출시 117μs/cm(2007년 6월), 물의 탁도도 유입수는 1.6NTU이었는데 유출수는 19.7NTU, 부유물질은 2.3mg/l에서 24.3mg/l(2006년 8월)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또한 "시가 입찰 당시 유수 특허가 수십개나 있음에도 특정 특허를 명시한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며 "인공습지의 효용성이 검증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도입, 오히려 수질만 악화시킨게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충분한 사전 검증을 거치지 못했다"며 인공습지는 일반적으로 3~4년이 지나야 제대로 정화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남택지구 설계부실로 사업비 증액=이철원(민주·북구5) 의원은 광주도시공사에 대한 감사에서 "지난 2004년부터 올 8월까지 진행된 하남택지개발지구 토목1·2공구 공사 과정에서 작업 중 진동으로 인근 주민 반발이 충분히 예견됨에도 계약시 진동공법을 채택했다가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나서야 무진동공법으로 바뀌 공사비가 당초보다 무려 70억원이 늘어났다"며 이는 설계 부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추궁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알맹이 없는 질의... 맥빠진 감사

전남도의회 재·심청 내용에 짚은 이석 비난

광주시의회도 겉핥기 질문·대안 부재 지적

올 한해 전남도 행정 전반을 점검·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 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수박 겉핥기식' 질문과 의원들의 짚은 이석, 전문성 부족 등으로 곱들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을 대상으로 15일부터 23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에 나선 일부 의원들은 도정의 핵심을 비껴간 채 각종 감사나 언론에서 거론됐던 내용들을 재탕, 삼탕식으로 거론해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사전에 치밀한 자료조사나 분석, 검토 없이 나열식 질문으로 일관해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특별한 쟁점이 맥빠진 분위기로 일관하고 있다.

각 상임위별로 진행된 사무감사에서는 2012세계박람회 유치 전략이나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농업·농촌대책, 투자유치 등 그동안 수차례 지적돼 왔던 내용들이 또 다시 제기됐다. 도정의 주요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대안 제시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의원들의 짚은 이석이나 중북 질의 등 고질적인 병폐도 여전했다. 21일 진행된 농수산환경위나 건설소방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의원 4~5명이 자리를 떠 불과 6~7명만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지난 15일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일에도 불구하고 전남도교육감을 배석시킨채 회의를 진행, 빈축을 샀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전남도의회가 요청한 자료는 총 1천890여건에 달했지만 정작 감사는 알맹이 없이 진행됐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14일부터 1주일동안 진행된 광주시의회와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도 좋은 평가를 얻지 못했다.

광주YMCA 시정지기단과 광주경찰서, 광주전남문화재단 등 10개 단체로 구성된 '광주시의회 행정감사 모니터 시민회의'는 지난 16일 "피감기관 광주시와 감사기관인 의회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이나 대의기관 대표로서의 의원들의 열정과 치열함을 찾아보기 힘들었다"며 ▲언저리 질문으로 시간때우기 ▲업무 파악 수준의 단발성 질문 ▲겉핥기식 지적 ▲정책대안 부재 ▲짜증기식 발언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시민회의는 모든 위원회가 관행처럼 예정시간보다 10~20분 가량 늦게 시작하기 심상이고 짚은 이석으로 단 2명의 의원만 감사장을 지닌 위원회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2012 세계박람회 여수유치위 홍보단이 22일 오전(현지시간) 제142차 BIE총회가 열리는 프랑스 파리 에펠탑 인근 트로카데오 광장에서 여수박람회 로고와 담긴 깃발을 흔들며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광주·전남사진기자단>

"한국에 돌아오지 않을 각오로 뛰겠다"

서갑원 국회 유치특위 간사 파리 출국



국회의 남해안 일대가 세계 무대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 소망을 담아, 마지막까지 자신의 힘을 다해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라는 쾌거를 안고 돌아오겠습니다."

국회 여수 엑스포 유치 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서갑원 의원(순천)은 22일 "세계박람회 마지막 유치 경쟁에 총력을 다하기 위해 오는 24일 프랑스 파리로 출국한다"며 "여수 엑스포 유치가 실패한다면 한국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갑원 의원은 특히, "2012년 여수 엑스포 개최는 10조원의 생산 증대, 9만 명의 고용 창출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며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수를 중심으로 한 대한민

국회의 남해안 일대가 세계 무대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이와 함께 "지난 4월 BIE 실사 당시 10만 명이 넘는 여수 주민들이 길거리에 나와 상원해 주셨던 그 열정과 감동이 되새기면서 막판 유치전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의 열망이 여수 엑스포 유치 성공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여수 엑스포 국회 특위 간사를 맡은 지난 1년 동안 유럽과 남미 등 세계 각국을 방문, 여수 엑스포 지지를 호소하는 한편, 엑스포 유치를 위한 정부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선 바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FILA advertisement featuring a large red background with the text 'FILA thanks festival 30-20% OFF' and images of people wearing FILA clothing. The website www.fila.co.kr is visible in the top right corner.